정신문화연구 2009 가을호 제32권 제3호(통권 116호) pp. 29~57.

研究論文

한원진과 홍대용의 정학이단론*

김 태 년**

Ⅰ. 서론
Ⅱ. 학문관
Ⅲ. 이단 비판
Ⅳ. 현실 인식과 비판의 자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서론

"'이적(夷狄)'이 '중화(中華)'의 주인이 되는" 명·청 교체를 겪으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북벌(北伐)'과 '북학(北學)' 사이에서 고민했다. 본고는 비슷한 시기 북벌과 북학을 각각 주창했던 한원진(韓元震, 南塘, 1682~1751)과 홍대용(洪大容, 湛軒, 1731~1783)의 정학이단론을 살펴봄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글이다.

한원진은 "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권상하(權尙夏)"로 이어지는 서인(西人) 노론계(老論系) 호서학통(湖西學統)을 계승하면서

* 이 논문의 초고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주최한 동아시아한국학 학술회의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중화론>(2008.6.26)에서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중화주의와 정학이단론: 한원진과 홍대용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허태용 연구교수가 토론을 맡아주었는데, 그의 토론은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교수, 한국철학 전공(simwoo@hanmail.net).

주자학의 정통을 수호하는 일을 자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러한 도통의식(道統意識)을 기반으로 '이단'과 다른 학파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반탕평(反蕩平)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북벌을 주장했다. 그는 리(理)와 기(氣), 심(心)과 성(性)의 구별을 강조하는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에 기반하여 인(人)·물(物), 유(儒)·석(釋), 화(華)·이(夷), 군자(君子)·소인(小人)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희(朱熹)의 정맥을 이으려 했다고 평가받는다.[1] 한편 홍대용은 노론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학풍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낙학파(洛學派)[2]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원행(金元行, 渼湖, 1702~1772)에게 배웠고, 지전설과 우주무한론을 주장했으며, 이를 근거로 화·이의 구분을 부정하는 한편, 인간과 다른 생물 사이에 위계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던 학자로서 박지원(朴趾源, 燕巖, 1737~1805)과 함께 '북학파 실학자'[3]로 명성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4] 이렇듯 두 사람은 '주자학자'와 '실학자', '북벌론자'와 '북학자'로 판연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실로 서로 다른 인식틀을 가지고 살았던 셈이다.

한원진이 주자학자로서 '북벌'을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홍대용은 실학자로서 '북학'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다는 이러한 기존의 평가를 감안하면 그가 주자학적 화이론과 학문관에서 탈피하여 무언가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고 추측하게 된다. 그의 우주론은 중심(中心)과 상하(上下)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위계를 부정하는 주장과 더불어 중화와 이적의 구분을 해체하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그의 생각은 결국 중화의 정학(주자학)을 부정하고 이적의 이단을 포용하여 결국 새로운 무언가를 '창신(創新)'하지 않았을까 예상하게 하기 때문이다.[5]

---

1) 한원진에 대한 연구동향은 김태년, 「남당 한원진의 '정학' 형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5~10쪽 참조.

2) 낙학파에 대한 연구 동향은 조성산,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에 대한 연구현황과 전망」, 『오늘의 동양사상』, 14(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285~314쪽 참조.

3) 북학사상에 대한 연구 동향은 허태용, 「'북학사상'을 연구하는 시각의 전개와 재검토」, 『오늘의 동양사상』, 14(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315~354쪽 참조.

4) 홍대용에 대한 연구 동향은 다음의 저서를 참조.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예문서원, 2005); 김도환, 『담헌 홍대용 연구』(경인문화사, 2007)

5) 홍대용의 사상을 양명학, 노장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다. 유명종, 「북학파와 양명학」, 『철학연구』, 20(1975), 95~117쪽; 송영배, 「홍대용의 상대주의적 사유와 변혁의 논리: 특히 『장자』

그러나 그의 문집인 『담헌서(湛軒書)』와 그가 북경을 다녀와 남긴 『을병연행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식'과는 다른 면모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살피겠지만 홍대용은 주자학을 정학으로 존숭했을 뿐 아니라 불교·도교·양명학 등을 이단으로 판정하고 그들을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비판은 모두 주자학의 이기심성론과 수양론에 기반을 두고 진행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주자학(성리학)을 극복하려 한, 혹은 탈주자학적 경향을 보이는 홍대용은 왜 이런 학문관을 피력했으며, 그에 근거하여 이단을 비판했는가? 혹 그간의 평가가 지나친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더 세밀히 살펴보면 뭔가 주자학과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원진과 홍대용의 학문관과 이단 비판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공유했던 지점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국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 가장 보수적인 주자학자였다고 평가받는 한원진과 가장 진보적인 실학자라고 평가받는 홍대용이 함께 공유한 측면, 즉 대동(大同)의 측면을 보아야 소이(小異)가 잘 드러날 수 있으며, 그럴 때 양자 간의 거리와 갈라진 지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그들이 남긴 텍스트 속에서 정학과 이단에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그들의 학문관과 이단에 대한 시각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6] 정학이단론은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들

의 상대주의적 문제의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74(일지사, 1994), 112~134쪽; 송석준, 「실학파의 사상에 나타난 양명학적 사유구조」, 『유교사상연구』, 7(1994), 391~415쪽.

6) 김문용과 야마우치 고이치(山內弘一)는 홍대용의 학문관과 이단론을 살펴보면서 본고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김문용은 홍대용의 학문관과 이단론이 비록 주자학의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다면서, 주자학을 부정하고 배척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주자학을 극복하고 벗어나려 했다는 의미에서 '탈주자학적 성격'을 지닌 '실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홍대용이 당시 조선 유학계의 학문 풍토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주자학의 말폐를 주자학 자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의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김문용, 앞의 책, 29~56쪽). 반면 야마우치 고이치는 홍대용의 학문관과 對淸觀을 분석하면서 홍대용이 보이는 주자학자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그는 홍대용이 기존의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화이관을 벗어났다는 기존의 평가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홍대용은 주자학자로서 전통적인 화이관을 견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山內弘一, 「洪大容の華夷論について」, 『朝鮮學報』, 159(朝鮮學會, 1996), 71~109쪽]. 그러나 양자 모두 논문 주제가 홍대용에 국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朱熹, 혹은 조선의 주자학자와 홍대용의 견해를 비교하지 않고 주로 홍대용의 언급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당대 조선의 주자학자와의 동이를 밝히는 데에는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이 학문적 타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사람의 학문관을 비교하고 그 주장 사이의 거리를 따져봄으로써 한원진 등이 펼쳤던 북벌론과 붕당론(군자소인론)이 벽이단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한편, 그들과 뿌리를 같이하면서도 다른 논의를 전개했던 '북학파'가 학문론에 있어서는 그들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분석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학문관

한원진은 사대부의 집안에서 태어나(1682) 정치적으로는 노론의 당론을 견지했으며 학문적으로는 율곡학파의 충청도 학맥을 이어 이른바 '호학파'의 맹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홍대용 또한 노론 사대부의 집안에서 태어나(1731) 율곡학파의 학맥을 이어 공부했지만, 그가 속한 학맥은 서울의 '낙학파'로, 한원진의 호학파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7]

한원진은 조부에게 글을 처음 배웠으며 18세(1699)에 과거 공부로 『대학(大學)』을 읽다가 '도학(道學)'에 뜻을 둔 이후, 계속 학문에 정진했다.[8] 이는 자손 중에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던 아버지의 소망에 따르는 것이기도 했다.[9] 21세(1702) 때에는 권상하가 '화양(華陽)의 적전(嫡傳)'이라는 소문을 듣고 청풍 黃江에 가서 권상하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이때 그는 이미 사서·삼경·「태극도설(太極圖說)」·『통서(通書)』·『역학계몽(易學啓蒙)』·『황극경세(皇極經世)』·『율려신서(律呂新書)』 등을 모두 읽었으며, 이단사설·천문·지리·병법·산수 등도 공

7) 율곡학파의 두 학맥은 한원진 이후 호락논쟁을 거치며 '호학파'와 '낙학파'라는 이름을 얻는다. 한원진 당시에는 黃江(湖中)의 권상하 문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서울(洛下)의 김창협 문하에서 공부하는 사람 정도의 구분이 있었을 뿐, 호학파·낙학파 등의 학파 의식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와 윤봉구의 논쟁을 거치면서 호학파와 낙학파 간의 구분 의식이 강화되어 갔으며, 홍대용 당대에는 이미 그러한 학파 의식이 기호 사림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원진 당대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맥락에 따라 낙학파·호학파로 묶어서 지칭한다.

8) 이하 그의 생애에 대한 서술 중 따로 출전을 밝히지 않은 부분은 『南塘先生年譜』(金謹行, 채인식 영인본 『南塘集』下 1039쪽)에 근거한 것이다.

9) 『南塘集』 卷33, 「先考妣墓誌」, 27쪽.

부한 상태였다고 한다.[10] 이후 그는 청풍을 오가며 권상하의 지도를 받는 한편, 평상시에는 동문들과 함께 편지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절에 모여 강학하는 등 성리설에 대한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학자로서의 삶은 40대에 경연관(經筵官)으로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어졌다.

홍대용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당시 경학(經學)으로 명성이 높았던 김원행을 찾아 석실서원으로 가서 경의(經義)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11] 이는 김원행이 사망하던 1772년, 그의 나이 42세까지 지속되었다.[12] 또한 그는 박지원을 25세 무렵부터 사귄 이래, 이덕무, 박제가 등 이른바 '북학파' 학자들과 평생 교유했고, 29세에는 나주목사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홍력(洪櫟)을 뵈러 가 나주에 머물면서 나경적(羅景績)과 함께 혼천의와 자명종을 제작하는 등 천문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교유 반경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중국에까지 넓혀졌다. 35세에 숙부 홍억(洪檍)의 군관으로 연행길에 올라, 북경에 과거를 보러 올라왔던 항주 선비 엄성(嚴誠)·반정균(潘庭筠)·육비(陸飛) 등과 교유하고,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그들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왕래했던 것이다. 한편 그는 44세에는 세자(정조)의 시직으로 발탁되어 벼슬길에 올라 사헌부 감찰, 태인현감, 영천군수 등을 역임했다.[13]

우선 이상과 같은 두 사람의 생애에서 드러난 사실을 비교해 보자.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50년 정도이고, 호학파와 낙학파의 사승 관계를 고려하면 두 사람은

---

10) 이 때 권상하는 "나이는 겨우 弱冠인데 위로는 天人性命으로부터 兵農律曆에 이르기까지 그 근원을 탐구하고 그 흐름을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참으로 시대의 뛰어난 인재"라 한원진을 평가했다. 『南塘先生年譜附錄』, 「忠淸道儒生金雲柱等上疏」, 56쪽; 채인식 영인본 『南塘集』下 1134쪽; 『正祖實錄』 卷52, 正祖 23年 10月 戊戌.

11) 석실서원에서 공부한 결과는 「心性問」, 「小學問疑」, 「家禮問疑」, 「四書問辨」, 「三經問辨」 등으로 정리되어 있고 『渼湖集』 卷10에는 홍대용이 보낸 문목에 대한 답이 남아 있다.

12) 한원진이 권상하의 적통으로 인정받았던 반면에, 홍대용은 스승인 김원행과의 관계를 볼 때, 낙학파 학통의 적장자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김원행은 홍대용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아끼기는 했지만, 그가 석실서원에 성실히 나와 공부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기도 하고, 송시열을 의심하고 윤증을 옹호하는 홍대용을 심하게 꾸짖기도 했다(『湛軒書·內集』 卷1, 「渼上記聞」, 55~58쪽). 한편 양자의 문집을 살펴보면, 홍대용이 김원행에게 보낸 편지는 1통만이 전해지고(위의 책 卷3, 「上渼湖先生金元行書」, 2~3쪽), 김원행이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는 5통 전해진다(『渼湖集』 卷10, 「答洪大容」, 1~12쪽). 홍대용의 편지는 김원행의 처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김원행의 편지는 經義와 관련한 問目에 대해 답변하고 학문을 권면하는 것이다. 김원행은 홍대용에게 實心을 강조하고, 愼思하여 致知居敬한 후에 사물의 이치를 살피라고 충고하고 있다.

13) 홍대용의 생애에 관해서는 김태준이 작성한 연보(앞의 책)를 참조했다.

두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난다.[14] 한원진은 주로 충청도에서 활동하며 호학파의 이념을 정초하였고 홍대용은 서울에서 활동하며 낙학파의 학맥을 이었으며, 한원진은 연행(燕行)의 경험이 없고 주로 호서지방의 학자들과 교류한 반면, 홍대용은 서울에서 활동하던 학자들은 물론 연행을 통해 청의 한족 학자들과도 친교를 다졌다. 이상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이라면, 그들은 모두 서인 노론계 율곡학파 학자였고, 일찍부터 경학을 공부했으며, 천문·지리·병가·산수 등 이른바 실용적인 학문에도 능통했고, 과거를 포기하였지만 세자나 왕의 경연관으로 발탁되어 벼슬길에 올랐다는 점 등은 두 사람의 사상이 함께 딛고 있는 공통적인 기반이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평생을 학자로서 살아갔던 두 사람이 추구한 올바른 학문이란 무엇인가?

성리학자라면 모두가 성인이 되기를 꿈꾼다. 부단한 수양을 통해 자기에게 부여된 선한 본성을 각성하고 확충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고, 더 나아가 이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확장하여 세계를 올바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학문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며 올바른 학문이란 그 길을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를 성학(聖學)이라 불렀다.

성학은 우선 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성인의 언행이 드러난 경전을 통해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성인처럼 살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노력한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현실적 한계를 일깨워주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성학의 체계 속에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공부 방법도 들어 있다.

주희는 학문과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두고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위인지학(爲人之學)으로 나누어 같은 유학자라도 자신의 부귀와 명성만을 위해 산다면 배격의 대상으로 삼았다.[15] 그의 눈에 비친 당대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과거에 합격해서 입신양명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모리배였다. 그들은 과거에 합격하기

14) 권상하와 김창협은 1세대, 한원진과 李縡(陶庵, 1680~1746)는 2세대, 김원행은 3세대, 홍대용은 4세대에 해당한다.

15) 이후 朱熹에 대한 서술은 김태년, 「지각, 세계를 인식하는 맑고 밝은 마음」, 『조선 유학의 개념들』(예문서원, 2002a), 299~321쪽; 김태년,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 『한국사상사학』, 22(2004), 248~276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위해 화려한 시문을 익히고 경전을 외우지만 그들이 익힌 시문은 시험 답안지용이거나 그들의 지적 허영심을 장식하는 사치였을 뿐 자신의 성정을 도야하고 표현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뜻[義理]도 모르고 달달 외운 경전의 글귀들은 그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혁시키지 못하였다. 주희는 그들을 '위인지학'을 하는 자들, 즉 자신의 도덕적 자아를 부단히 완성시켜 나아가는 공부(위기지학, 실학)를 도외시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권력욕·명예욕 때문에 고시 공부를 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그는 불교에 대해 개인적인 해탈에만 몰두하여 인륜을 끊어버리는 오랑캐의 종교라고 격렬히 비판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그나마 개인적인 실존에 대한 고민도 없이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을 더 혐오했던 것이다. 주희의 이러한 의식은 한원진은 물론 홍대용에 의해서도 계승되고 있다.

> 천하에 영재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벼슬에 얽매이고 물욕에 가려지며 안일함에 중독되기 때문에 초연하게 여기에서 벗어나 고학(古學)에 힘쓸 수 있는 자는 드물고, 사장(詞章)으로 꾸미고 기송(記誦)으로 과시하며 훈고(訓詁)에 구속되기 때문에 숨어서 묵묵히 실학(實學)에 힘쓸 수 있는 자는 드물며, 공리(功利)로써 그 학술을 혼란시키고 노불(老佛)로써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며 육왕(陸王)으로써 그 참됨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정학(正學)을 우뚝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16)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홍대용이 '올바른 학문'을 지칭할 때 사용한 개념들로 고학, 실학, 정학 등이 있다. 그가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공부, 공리·노불·육왕의 이단들과 각각 대비시켜 '고학', '실학', '정학'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각각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같은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지학이 바로 고인들의 학문[古學]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공부가 실질적인 공부[實學]이었다. 그리고 이런 태도로 천리를 구현하는 성인의 올바른 학문[正

16) 『湛軒書·外集』 卷1, 「與鐵橋書」, 6쪽. "天下之英才, 不爲少矣. 惟科宦以梏之, 物慾以蔽之, 宴安而毒之, 由是而能脫然從事於古學者, 鮮矣, 詞章以靡之, 記誦以夸之, 訓詁以拘之, 由是而能闇然用力於實學者, 鮮矣, 功利以襍其術, 老佛以淫其心, 陸王以亂其眞, 由是而能卓然壁立於正學者, 尤鮮矣."

學]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한원진을 포함해 주희 이래 모든 성리학자들이 추구했던 성학이었다.

따라서 홍대용이 추구했던 올바른 학문도 주희나 한원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학문을 의리의 학, 경제의 학, 사장의 학으로 구분하고 이것들은 모두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의리를 따지는 학문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주장했고,[17] 그 스스로도 이를 공부하기 위해 당대 경학으로 명성을 떨치던 김원행의 문하에 들어가 과거를 포기하고 경의 의리를 공부했으며, 그 결과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경학을 잘하는 학자로 평가받기도 했다.[18]

한편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가 이상시했던 인간상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결과이기도 했다. 그는 항상 인의(仁義)를 생각하고 예법을 행하면서 부귀함이나 곤궁함에 굴하지 않고 천자나 제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자, 벼슬길에 나아가 정치를 하면 천하 사람들이 그 은택을 입고 재야에서는 학문과 교육에 매진하여 도를 영원히 밝힐 수 있는 자라야 참된 선비라고 생각했다.[19] 또한 과거 공부란 비록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급제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에만 온 힘을 기울여 실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20]

물론 그가 성리를 바탕으로 한 경학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경세를 위한 학문과 상수·명물·천문·음악에도 조예가 있었고 이에 대해 평생에 걸쳐 연구를 했지만,[21] 그리고 그 내용에는 서학에서 섭취한 것들도 들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실학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으며 이는 실제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자학의 오랜 전통과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22] 그는 「소학문의(小學問

17) 위의 책 卷7, 「燕記·吳彭問答」, 2쪽.

18) 『湛軒書·內集』 卷2. 「桂坊日記·甲午」, 12월 1일조. 홍대용은 스스로 시는 잘 못하지만 경학을 말하라면 종일토록 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고 장담한 일도 있었다. 「燕記」, 병술년 2월 26일.

19) 위의 책 卷3, 「贈洪伯能說」, 31쪽.

20) 위의 책 卷3, 「自警說」, 33쪽.

21)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가 남긴 아버지에 대한 기록, 『過庭錄』에는 홍대용, 정철조, 이서구, 박지원 등이 서로 만나면 항상 며칠씩 묵으면서 위로 고금의 치란과 흥망의 까닭과 옛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고 시골에 숨어있는 大節과 제도의 연혁, 농공의 이익과 폐단, 산업경제, 산천과 국방, 천문관상, 음악, 초목과 조수, 六書와 산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록했다는 언급이 있다. 박종채(저)/박희병(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돌베개, 1998), 34쪽.

22) 「의산문답」에 있는 허자의 말에서도 경세학과 실용학이 유학(주자학)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젊었을 적에 성현의 글과 詩禮의 공부를 익혔고, 커서는 陰陽의 변화와 人物의 이

疑)」[23]에서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육예(六藝)를 가르쳐 그 아이가 자라서는 비록 성리를 모르더라도 실천에서 어긋나는 점이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경전과 주희의 주석에 대해서는 외우고 배워 잘 알지는 몰라도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초적인 육예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가 전통적인 성리와 경의를 공부하는 것 이외에 연구했던 '실천적인 학문'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서 있던 것이 아닐까 한다.[24]

그렇다면 그는 당대 학문 현실에서 어떤 점을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위 인용문에서 세 가지 측면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남을 이기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공부였다. 그는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며 나만이 제일이라면서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에 대해 걱정했으며,[25] 스스로 호학(好學)한다고 자부하는 자들도 다만 경에 대해 말하고 이기심성론을 논하면서 예전 사람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애쓸 뿐, 실제 일상 행활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26] 그는 남보다 박식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석에 다시 주석을 다는 현학적 풍토에 대해서 "공자·주자가 공자·주자답게 된 이유는 도(道)에 있는 것이지 그들의 글에 있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리고 사업은 게을리 하면서도 오직 글을 널리 읽지 못할까 걱정하고 본원은 날로 거칠어갈지언정 오직 저술을 많이 못할까 두려워하니,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운다는 성인의 훈계가 사라진지 오래된 현실을 개탄했다. 옛 학자는 서적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오늘날 학자는 서적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며 옛날에는 서적이 없어도 영웅과 현자가 배출되었는데, 지금은 서적이

치를 탐구하였습니다. 忠과 敬으로 마음을 길렀고 성실하고 민첩하게 일을 했으며, 經濟는 周官에 근본했고 出處는 伊尹과 呂尙을 본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藝術과 星曆과 兵器와 籩豆와 數律에 이르기까지 제한하지 않고 널리 배웠으나 六經을 표준으로 삼고 程朱의 학설로 절충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실옹은 이에 대해 "儒學의 綱領이 모두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23) 「湛軒書·內集」 卷1, 4쪽.

24) 홍대용은 예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례경전통해』에 대한 주석서를 쓰려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곡, 갑병, 산수에 힘쓰는 것을 경계하자 그에게 반박서한을 보내 "오직 우리의 실학은 오로지 옛 서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에 따라 반성하고 사욕을 없앰으로써 타고난 본심을 닦고 길러야"하는 것이라면서 "율력·산수·전곡·갑병" 등은 "人事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의 책 卷3, 「與人書二首」, 19쪽.

25) 『湛軒書·外集』 卷1, 「答朱朗齋文藻書」, 42쪽.

26) 위의 책 卷2, 「乾淨衕筆談」, 19쪽.

많아도 인재는 날로 줄어드니, 서적이 많은 것이 화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27]

그의 이러한 문제 의식은 「의산문답」 첫머리에 잘 표현되어 있다. 허자가 주공(周公)과 공자의 업적을 높이고 정자(程子)와 주자의 말을 익혀서 정학을 지키고 사설을 물리치며 인(仁)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총명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서 몸을 보전하는 사람이 현자라고 하자, 실옹은 정학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사설을 물리치는 것은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인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총명하고 올바르게 처신하여 몸을 보전하는 것은 이익을 노려보자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 그것이다.[28]

또한 홍대용은 당시의 주자학에 대한 교조주의적 태도도 비판했다. 조선의 학자들이 주희를 존숭하는 것은 중국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지만, 떠받드는 것만 소중한 줄 알았지 주희의 경전 해석 중 의심스럽고 이의를 제기함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부화뇌동하여 온 세상의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니, 이는 향원의 마음가짐으로 주자를 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29] 물론 경의와 이기심성론을 열심히 공부했던 홍대용이 그 공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공부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성학의 원래 취지와 달리 호승심과 현학을 과시하는 데 쓰이고 있는 현실을 경계한 것이다.[30] 이러한 그의 우려와 비판은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기심성론의 논리나 경전에 대한 공부 수준을 두고 서로 논쟁하며 우열을 다투고, 나아가서는 사문난적 시비까지 벌이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리라 판단된다.

어떻게 보면 홍대용이 비판한 학자들의 전형이 한원진일 수도 있다. 한원진이 평생에 걸쳐 한 일이 바로 정학을 수호하고 이단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경학과 이기심성론을 무기로 삼아 타학파와 타당파를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27) 『湛軒書·內集』 卷3, 「與人書二首」, 21~22쪽.

28) 위의 책 卷4, 「毉山問答」, 17쪽.

29) 『湛軒書·外集』 卷3, 「乾淨衕後語」, 37쪽.

30)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런 현실에 대한 그의 분노는 비슷한 현실 속에서 고민했던 장자와 왕수인 등에 대해 동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로 이어지기도 한다. "嗚呼! 七十子喪而大義乖. 莊周憤世, 養生齊物, 朱門末學, 汩其師說, 陽明嫉俗, 乃致良知. 顧二子之賢, 豈故爲分門甘歸於異端哉? 亦其憤嫉之極, 矯枉而過直耳." 「與人書二首」, 『湛軒書·內集』 卷3, 19~20쪽; "但名爲宗朱者, 多偏於問學, 終歸於訓詁末學, 反不如宗陸之用功於內, 猶有所得也, 此最可畏耳." 위의 책 卷3, 「乾淨衕筆談續」, 11쪽.

한원진이 생각한 정학은 무엇이길래 평생에 걸쳐 그것을 수호하려 했는가?

한원진은 성학에서 가장 급한 일은 성선(性善)을 아는 것이고 가장 큰 일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며,[31]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단을 배척하고 정학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32] 앞서 언급한대로 정학은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성인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한편,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성인 되기'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기질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단은 이와 반대로 자신의 현실적인 욕망이 진짜 본성이라 오해해서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두거나, 도덕적 완성체인 성인은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성인이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혹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객관적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리(理)를 주(主)로 하는 것은 정학이고 기(氣)를 주(主)로 하는 것은 이단이오니, 정학과 이단을 가리는 것은 단지 리와 기에 달려 있을 따름이옵니다.[33]

한원진이 영조에게 밝힌 이단과 정학의 감별법이다. 여기에서 "리를 주로 한다"는 것과 "기를 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율곡학파의 전통에 따라 한원진에게 성은 곧 리이고[性卽理] 심은 곧 기이다[心是氣]. 따라서 비록 성이 심 안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는 리로서, 기인 심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구분에 입각하면, 리를 주로 하는 것은 성을 주로 하는 것이고, 기를 주로 하는 것은 심을 주로 하는 것이 된다. 요컨대 '성즉리(性卽理)'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이 곧 순선한 천리임"을 믿으며, 이에 의거하여 기인 심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리를 주로 삼는 정학이며, 노장처럼 기를 시비·선악을 초월한 궁극자[道]로 여기거나, 순자와 양웅처럼 선악이 혼재된 기질을 본성이라 생각하거나, 불교처럼 심이 리와 관계없이 순선하다고 착각하거나, 육왕학처럼, 그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기에 불과한, 심을 리와 같은 것이라 여겨 그 안에서 리를

---

31) 『南塘集』, 卷35, 「雜識內篇上25」, 11쪽.

32) 이하 한원진에 대한 서술은 김태년, 앞의 논문(2006), 3장 2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33) 위의 책 卷6, 「經筵說下」, 34쪽. "主於理者爲正學, 主於氣者爲異端, 正學異端之辨, 只在於理與氣而已矣."

찾으려는 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 기를 주로 삼는 이단이라는 말이다.

한원진은 기를 주로 삼게 되면, 리로 기를 제어하고[以理御氣] 기로 하여금 리의 명령을 듣게 하여[氣聽命於理] 모든 일을 도에 맞게 하는 유학과 달리, 기로 리를 부리고[以氣役理] 리가 도리어 기의 명령을 들어[理反聽命於氣]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하는[猖狂自恣]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학에서는 리는 순선하고 기는 청탁수박(淸濁粹駁)에 따라 차별이 있으니 기질을 변화시켜야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단의 논리대로라면 기질[氣]이 본성이 되니, 굳이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가 필요하겠냐고 반박했다.[34] 즉 현실을 당위 규범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단은 거꾸로 현실에 당위를 맞추려 하여 도덕적 가치를 무력하게 만들며 본능을 강조함으로써 수양의 근거를 없앤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원진은 이단과 대비되는 정학에 주목했다. 물론 그의 학문관도 위기지학과 실학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것은 주기(主氣)의 이단에 맞서 주리(主理)의 정학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주자학은 훈고나 사장을 기반으로 한 과거공부[記誦]에 함몰되는 것을 비판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한편, 불교로 대표되는 이단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일종의 사상 운동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학문을 진짜 학문, 즉 실학이라고 했다. 한원진과 홍대용을 비교하자면, 두 사람 모두 주자학을 존숭하는 율곡학파의 학자였지만,[35] 양자는 주자학에서 각각 주목하는 바가 달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이단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또 한 사람은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

34) 위의 책, 卷6, 「經筵說下」, 34~35쪽.

35) 한원진은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孟子-朱熹로 이어지던 중화의 道統이 조선에 와서 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卷32, 「祭遂庵先生文」, 13쪽; 위의 책 卷34, 「寒水齋權先生行狀」, 22쪽; 위의 책 卷6, 「經筵說下」, 36~38쪽. 홍대용 또한 중국의 학자들에게 조선을 소개하면서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등의 학자들이 정주의 리학을 지켜왔고 문묘에 종사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이에 대해서는 특히 "율곡 이이가 자품이 淸通하고 견해가 超邁하며 性理를 논한 여러 설이 고명하고 정확하여 大原을 통견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이기론을 간략히 소개했다. 『湛軒書·外集』 卷2, 「乾淨衕筆談」, 34쪽.

III. 이단 비판

같은 학문관을 가졌던 두 사람은 다른 학문을 비판하는 내용과 논리도 비슷했다. 그들은 모두 유학 이외의 사상을 이단으로 지목했으며, 유학 내에서도 주자학 이외의 학문을 이단에 물든 것으로 규정했다.

한원진은 우선 노장・불교・순자・양웅을 "기를 주로 하는" 이단으로 지목했다. 그는 노장에 대해 그들은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의 혼돈허정(混沌虛靜), 즉 기의 태초(太初)를 도라 하면서 만사의 시비・선악이 모두 이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물(齊物)이라는 명목으로 시비・선악을 병존시키려 하였다고 평가했다.[36] 불교는 기의 영묘한 운용인 영각을 성이라 여기면서 물 긷고 나무하는 일상을 묘도(妙道)라 하였고, 순자와 양웅은 성을 선악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한원진은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은 모두 "리는 곧 성이며 이는 순선하다"는 것을 모르고 리나 성을 선악이 뒤섞여 있는 기와 같은 것으로 여겼다[認氣爲理・認氣爲性・認氣質爲性道]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37]

그의 이러한 비판은 육왕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한원진은 불교가 심의 본질[性]을 공(空)으로 여겨 심(혹은 性)과 리를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비해 육왕학은 심과 리를 하나로 여겨[心卽理] 둘을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불교와 육왕학 모두 궁극적으로 심[氣]을 주로 여기는 점에서는 같다고 설명했다.[38] 불교에서는 영각을 성이라 여기고 육구연은 인심을 지선(至善)으로 여기며, 왕수인은 오로지 치양지(致良知)를 주로 하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양지(良知)는 불교의 '영각[虛靈明覺]의 지(知)'일 뿐이니, 이는 모두 심을 성으로 여기고 리와 기를 구분하지 않는 이단의 논리라는 것이다.[39]

그런데 이단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원진은 이단이 리・기 관계와 심・성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는 리와 기는 선후가

---

36) 한원진은 莊周의 이른바 眞君의 心은 선악의 분별이 없는 靈覺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평가하며 莊子와 불교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莊子辨解』 9쪽.

37) 『南塘集』, 卷6, 「經筵說下」, 34~35쪽.

38) 『朱子言論同異攷』 卷6, 「異端」, 13쪽; 곽신환(譯註), 『주자언론동이고』(소명출판, 2002), 468쪽.

39) 『南塘集』 卷27, 「王陽明集辨」, 44쪽.

있는 이물(二物)임과 동시에 선후가 없는 일물(一物), 즉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인[一而二, 二而一] 관계인데, 리와 기에 선후가 있어 이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장차 대본(大本)의 소재에 어둡게 되어 기를 리라고 여기고 인욕을 도심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게 되고, 반면에 리와 기가 선후가 없는 일물임을 모르면 인간이 태어난 후에는 천명이 심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두워 성선을 형기(形氣)의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듯 기를 리로 여기고 인욕을 도심으로 여기는 자들은 천리를 적으로 돌리고 인욕을 따르게 되어 자신의 좋지 못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한편 성선을 기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아득하고 텅 빈 곳에서 성을 찾으며 객관 규범이 원래 일상 세계와 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원진은 이 두 경우가 성선을 알고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결국 동일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모두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해 명확치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40]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한원진은 정학과 이단은 각각 '주리'와 '주기'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는 결국 리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원진에게 이기론은 모든 이론의 토대이자 정학과 이단이 갈리는 출발점이었다. 그의 선배 학자들이 이기론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이유도, 그가 도통을 언급하면서 이기론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41] 이기론은 일상에서 수양하는 것과 무관하니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도를 해치는 자라고[42] 그가 엄중하게 비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원진은 애초에 이기론이 잘못된 노장·불교·육왕학 등의 이단 이외에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이이의 저작 속에 섞여 있는 서경덕의 본연지기설(本然之氣說), 그리고 이간의 미발심체순선론(未發心體純善論)·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등의 이설(異說)들도 모두 이기론에 대한 주희의 본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이단의 영향을 받아 생기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이러한 학설들과 지난한 사상 투쟁을 벌였다. 그것이 춘추 의리를 밝혀 조선을 중화의 계승

40) 위의 책 卷35, 「雜識內篇上25」, 11~12쪽.
41) 김태년, 앞의 논문(2006), 4장 1절 참조.
42) 『南塘集』, 卷35, 「雜識內篇上25」, 12쪽.

자로 만들라는 시대적 요구에 그가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홍대용의 이단에 대한 견해는 한원진과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학문하면서 방법의 선택이 정밀하지 못하면 인의를 잘못 배워,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니, 옛 사람들이 자세히 묻고 밝게 분별하면서 공부한 것이 그 때문이라면서 특히 예로부터 고명한 선비들 중에 노불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그들의 논리가 리에 가까워 더 크게 어지럽히기 때문이니, 더욱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43] 그리고 경서와 역사서 이외에 이단 서적들은 반드시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해야 하며, 음탕하고 허무맹랑한 말은 공부에 방해되고 뜻을 잃기 쉬운 것이니, 절대로 보지 말라고 경계했다.[44]

그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도교, 불교, 서학을 이단으로 지목했고 풍수설 등의 허구성을 지적했으며, 사량좌(謝良佐), 육구연(陸九淵), 왕수인(王守仁) 등 유학자 중에서도 이단에 물들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45]에 대해 비판했다. 그의 비판 논리를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도교에 대해서는 신선술을 소재로 하여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의 허구성을 주로 비판했다. 태(胎)로 호흡하는 방법과 단(丹)을 이루는 술법이 있어 천년 만년 산다 하더라도 끝내는 죽음으로 돌아가니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신선의 술법은 무위(無爲)가 요체라 사실 욕망을 없애야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마음을 채울 수조차 없으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46]

한편 그는 음양오행설에 기반한 분야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직 역상(曆象)을 추산하는 법은 궁도(宮度)에 따라 하는 것이고 별에 명칭이 붙은 것은 역가(曆家)들이 편의적으로 한 것인데 이를 부연하고 여기에 속된 것을 곁들여 지루하고 난잡하고 허망한 복술가(卜術家)의 무기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구를 태허(太虛)에 비교한다면 미세한 티끌만큼도 안 되며, 저 중국을 지구와 비교한다면 십수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전 지구를 별의 수도(宿度)에 나누어 붙인다면 혹 모를까 한쪽에 있는 구주(九州)를 여러 별에 억지로 배합시켜 나누기도 하고

43) 『湛軒書・外集』 卷1, 「與鐵橋書」, 8쪽.
44) 『湛軒書・內集』 卷3, 「自警說」, 33쪽.
45) 홍대용은 사량좌는 정자의 문하에서 직접 배웠지만 노불에 빠졌고, 육구연은 맹자를 끌여들였지만 불교에 가까운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湛軒書・外集』 卷1, 「與鐵橋書」, 8쪽.
46) 『湛軒書・內集』 卷4, 「毉山問答」, 24~25쪽.

합치기도 하여 재앙과 상서를 엿보다니 그 허망함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단언했다.[47] 물론 이러한 그의 견해는 지구설과 자전설, 우주무한설 등 그의 우주론에 기반한 것이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설명을 배격한다는 점에서는 주자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서학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비록 천문과 역법에 대해서는 서학이 새로 개척한 분야가 많고 서양인들은 온갖 기계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하여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하늘을 부처 섬기듯이 하여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착한 일을 하여 복을 구하라 하니 중국 성인의 도가 아닌 이적의 것이라 논의할만한 것이 없고 유학의 상제 개념을 훔쳐다가 불교의 윤회설을 더한 것이라 가소롭다고 평가했다.[48] 여기에서 서양의 기술과 종교를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서학에 대한 그의 기본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불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비판을 남기지 않았는데, 정조가 세자로 있을 무렵 서연에 참가하여 불교를 주자학과 비교하여 설명한 것을 보면 주희나 한원진 등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性)이란 것은 사실 심(心, 지각)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유교에서는 성은 리, 심은 기로 구별한다는 것이다.[49]

그가 가장 언급을 많이 했던 것은 왕수인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이었다.[50] 그는 왕수인의 공업이 높음을 인정하는 한편 그가 도문학(道問學)을 무시하고 존덕성(尊德性)만 중시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지나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육구연이나 왕수인이 주희와 결국은 같은 취지의 학문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51] 그가 지적한 양자의 차이는 격물(格物)과 치지(致知)에 있었다. 주희는 사물에 나아가 그 리를 궁구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왕수인은 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니, 오직 양지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양지란 『맹자』에 나오는 말로 이를 다하는 것[致良知]을 누

47) 위의 글, 26쪽.
48) 『湛軒書·外集』 卷2, 「乾淨衕筆談」, 41쪽;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초7일.
49) 『湛軒書·內集』 卷2, 「桂坊日記」, 36쪽.
50) 아마도 이것은 중국에서 만난 학자들이 양명학적인 경향을 보인 데 기인하는 것이리라 판단된다. 그들과 나눈 필담, 그리고 귀국 후 주고 받은 편지 속에서 양명학에 대한 우려는 계속 표명된다.
51) 『湛軒書·外集』 卷2, 「乾淨衕筆談」, 3쪽; 위의 책 卷3, 「乾淨衕筆談續」, 20~21쪽.

가 그르다고 하겠는가마는 거기에 궁리하는 공부를 선행하지 않으면 동쪽을 가리키어 서쪽이라 하고 도적을 자식으로 오인하게 되지 않겠냐며 비판했다. 만일 강학하는 것은 제쳐놓고 고요히 눈 감고 앉아 오로지 본심이나 양지에만 뜻을 기울인다면 비록 한 때의 집중시킨 힘으로 다소 마음이 맑아지고 깨우쳐 해득하게 되는 공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52]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대용이 지목한 이단과 그것이 이단인 이유는 한원진과 거의 같았다. 다만 홍대용은 서학에 대해 비판을 한 반면, 한원진은 이에 대해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원진이 서학을 긍정했다는 것은 아니다. 한원진은 지역적 한계 때문에 서학에 대해 잘 몰랐고, 그에 따라 서학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53] 두 사람 사이에 달랐던 것은 이단 비판에 쏟은 노력과 태도였다. 한원진은 이단 비판을 자신의 필생의 목적으로 삼은 반면, 홍대용은 그렇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노력과 태도도 달라졌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Ⅳ. 현실 인식과 비판의 자세

문화·지역·종족이 통일된 중화였던 명이 만주족 청에 의해 멸망하고 중원이 다시금 '이적'의 발 아래 떨어지자 조선의 지식인들은 심한 자기 분열에 빠지게 되었다. 항상 중화를 사모하며[慕華] 작은 중화[小中華]를 자처하고 중국을 섬겼는데[事大] 이젠 그 중국이 아닌 '이적'을 섬겨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자기 부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언가 방어 논리를 찾아야 했다.

우선 그들은 천하에 마지막으로 남은 중화 국가로서 춘추(春秋)의 의리에 따라 그 책무를 다 하는 것, 즉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정신에 따라 이적을 물리치는

52) 위의 책 卷1, 「與篠飮書」, 4쪽.

53) 호서학자들이 마테오리치의 지구설을 지구육면체설로 오해하고 토론한 것을 보면, 그들의 서학 이해 수준과 문제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호서학자들의 지구육면체설 논의에 대해서는 임종태, 「우주적 소통의 꿈: 18세기 초반 호서 노론 학자들의 육면세계설과 인성물성론」, 『한국사연구』, 138(2007), 75~120쪽 참조.

‘북벌’을 선택했다. 비록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는 걸 예감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택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더 이상 중화의 나라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양란을 거치면서 심각한 민심의 이반을 경험했던 조선의 지배층들은 ‘강상(綱常)’의 붕괴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오랑캐 무찌르기’를 주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단 물리치기’와 ‘소인배 척결하기’를 추진하면서 그를 통해 중화가 재건되고 정학이 바로 서며 군자들이 정치를 주도하기를 소망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목받는 이는 바로 송시열이었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학문적으로 심화시킨 당대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이가 한원진이었다.

한원진은 양란 이후 국정이 피폐해지고 민심이 흩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외적[淸]이 침입하는데 국내에서는 도적이 발호하는 상황, 또는 먼저 국내에서 도적이 일어나고 외적들이 그 혼란을 틈타 침략하는 상황이 조선에서 발생하지나 않을까 걱정했다.[54]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 국방, 세제 등 전 방면에 걸쳐 개혁을 해야 하고, 각종 개혁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당쟁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당쟁 해소책은 ‘소인배 척결하기’였고, 이는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한편 양란 이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일과 더불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명의 멸망에 따른 자기 정체성의 확보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스스로 중화의 적장자로 자임하면서 병자호란의 굴욕감과 명 멸망의 당혹함을 달래려는 방식을 택했는데, 한원진 또한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중화를 계승하는 길은 춘추 의리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파악한 춘추 의리의 핵심은 “존왕[華]양이”이다.[55] 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오랑캐를 무찌르고 중국의 천자를 보호하자는 것이고, 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오랑

54) 당시 상황에 대한 한원진의 인식과 개혁안에 대한 서술은 김태년, 앞의 논문(2006), 2장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南塘集拾遺』 卷2, 「擬上時務封事」, 3~7쪽; 『南塘集』 卷4, 「陳情乞退兼附所懷疏」, 11~12쪽; 위의 책 卷6, 「經筵說(1726. 9. 19)」, 4~5쪽; 위의 책 卷5, 「經筵說(1726. 8. 16)」, 10쪽; 위의 책 卷6, 「書筵說(1721. 11. 27)」, 49~50쪽; 『南塘集拾遺』 卷2, 「擬上時務封事」, 7~24쪽.

55) 한원진은 「陳大義疏」(『南塘集』 卷3, 25쪽)에서는 “尊華攘夷”를, 「拙修齋說辨」(『南塘集拾遺』 卷6, 35쪽)에서는 “討亂賊·攘夷狄”을 春秋義理의 핵심으로 든다.

캐의 문화를 물리치고 중화의 도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는 송시열과 권상하의 뒤를 이어 청에 대한 북벌을 정치적으로 춘추 의리를 구현할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구상은 조선에 대한 자부심, 즉 현재 천하에서 조선만이 중화 문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중화자존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한원진은 북벌을 통해 춘추 의리를 실현하는 것은 홀로 문명을 지키고 있는 조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56]

이렇듯 한원진에게는 소인(역적)과 오랑캐가 중화의 의리를 무너뜨리는 적이었다. '중국'의 적은 '이적'이고, '군자'의 적은 '소인'인 것이다. 그런데 소인과 역적이 주장하는 논리는 바로 이적의 학문인 이단의 그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이단을 물리치는 것은 역적·소인을 말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적의 사상을 비판하고 중화의 도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한원진은 근본적인 처방으로 이단을 물리쳐야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주희가 금(金)의 침입에 맞서 오랑캐의 학문(이단)인 불교를 극복하고 중국의 정학인 유교를 부흥시키려 한 것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한원진은 오랑캐 청에 의해 중국이 점령당해 있고, 조선도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 주희의 상을 자기에게 투사했다. 그래서 주희가 금과 싸울 것을 주장했던 것처럼 그는 북벌을 통한 '토적복수(討賊復讐)'를 주장했고, 주희가 불교와 유학 내부의 이단적(불교적) 경향(張九成·陸九淵 등)을 비판했던 것처럼 그는 불교·노장·육왕학, 남인과 소론, 그리고 낙학파, 심지어는 동문이었던 이간의 논리에 드러나는 이단적 경향[57]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한원진에게 양명학 등의 이단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명의 멸망이 양명학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맹자 이후 끊어졌던 성학의 도통을 주희가 이었는데, 주희가 사망한 지 수백 년도 못되어 명의 학자들은 다시 육왕학을 따르며 주자학을 배격한 결과, 명은 끝내 오랑캐를 불러들이는 화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58] 한원진은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

56) 『南塘集』 卷38, 「雜識外下14」, 11쪽.

57) 양명학과 낙학파 비판에 대해서는 김태년, 앞의 논문(2004), 247~276쪽 참조.

58) 『南塘集』 卷4, 「辭召命兼附所懷疏」, 28~29쪽; 위의 책 卷38, 「雜識外下24」, 19~20쪽.

> 명이 멸망할 때에 도술이 밝지 못하여 이단이 일어났사옵니다. 진헌장(陳獻章)과 왕수인의 무리들이 육구연의 학문을 존숭하고 주자를 폄훼하고 배척하여 성문(聖門)에 등을 돌리자 의리가 날로 어두워지고 습속이 엉망이 되었으며 문장과 학술이 모두 부박하고 괴벽하게 되었사옵니다. 자기 이론이랍시고 떠드는 자들은 모두 정자와 주자와 다른 설을 내놓아 성현을 능멸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거슬러 제멋대로 백성들을 현혹시켰사옵니다. 세도(世道)는 날로 망해 가는 데다 화란(禍亂)이 그 틈을 타서 일어나니, 그 화의 심각성이 서진(西晋)의 청담(淸談)과 같을 지경이었사옵니다.[59]

그러면 조선의 상황은 어떠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은 아직까지는 천하에서 유일하게 주자학의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이지만, 현재는 이를 자신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 한원진의 진단이었다. 윤휴(尹鑴)·박세당(朴世堂) 등이 주희의 정론과 다른 이론을 내놓기 시작함으로써 '주자 독존'의 학문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가 명 멸망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양명학은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었다.

사실 한원진에게 양명학은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었다. 그가 더 걱정했던 것은 조선 주자학계 내부에 침투한 양명학적 경향이었다. 한원진은 「선학통변(禪學通辨)」에서 그가 불교와 육왕학을 비판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밝혔다.

> 근세에 또한 영각(靈覺)을 명덕(明德)이라 여겨 성선을 도외시하고 본심(本心)을 논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육왕의 무리이며, 이는 불교의 별지(別枝)에서 나온 것이다. 영각지심(靈覺之心)이 정말 순선하다면, 이 영각을 보존하여 응연무애(應緣無礙)한다고 하는 불교의 주장이 지극한 성공(聖功)이 될 것이니, 그들을 어찌 이단사설이라 할 수 있겠는가?[60]

---

59) 위의 책 卷4, 「辭召命兼附所懷疏」, 29쪽. "故終明之世, 道術不明, 異端紛起. 始則陳王之徒, 推尊江西之學, 毁斥朱子, 背馳聖門. 自是義理日晦, 習俗大壞, 文章學術, 靡然皆趨於浮薄乖僻. 喙喙爭鳴者, 動必以立異程朱, 凌駕聖賢爲高, 反道悖教, 恣意誣民, 馴致世道淪喪, 禍亂乘之, 其禍之酷烈, 殆有甚於西晉之淸談."

60) 위의 책 卷27, 「禪學通辨」, 24쪽. "近世又有認靈覺而爲明德, 外性善而論本心者, 此亦陸王之類, 而又生西教之別枝矣. 靈覺之心, 果是純善, 則佛氏之存此靈覺而應緣無礙者, 將爲聖功之至矣, 何以爲異端邪說耶?"

그는 '선학(禪學)—상산학—양명학'을 함께 이단으로 묶고, 이들의 위험한 논리가 낙론에도 내재해 있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호락논쟁의 당사자였던 그는 불교와 상산학, 그리고 양명학 등 이단의 논리가 갖는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당시 지성계에 널리 퍼지고 있던 낙론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려 했다. 그는 낙학파가 영각과 명덕, 그리고 본심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순선하다는 근거를 찾고 있으니, 이는 곧 불교와 육왕학의 논리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결국 한원진의 이단 비판, 특히 양명학 비판은 자기 사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반대 진영(낙학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도구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유교, 특히 주자학의 가장 큰 적인 불교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양명학이 명을 멸망시켰다고 비판하는 한편, 그러한 양명학의 논리가 낙론 등에 내재하고 있다고 경계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한원진은 이단을 물리치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에 따라 그의 이단에 대한 태도는 단호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홍대용이 이단에 대해 보인 태도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원진은 이단에 대해 그 어떤 여지도 두지 않았지만 홍대용은 이단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사정을 인정하기도 했다.

> 공자의 70제자들이 다 돌아가시자 대의(大義)가 무너져 우유(迂儒)와 곡사(曲士)들이 박식(博識)만 숭상하고 요도(要道)는 알지 못하므로 장주(莊周)가 이런 세태를 개탄하여 양생과 제물(齊物)을 논하였습니다. 주자 문하의 말학(末學)들이 구이(口耳)로 기송(記誦)하고 훈고(訓詁)하는 것만을 숭상하여 그 스승의 설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양명이 이런 시속을 밉게 여겨 치양지(致良知)를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 시대를 근심하고 세도를 걱정한 뜻이었습니다만, 잘못을 교정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 방자한 의논의 폐해가 우유나 곡사와 다를 것이 없게 되었고, 도를 바로 잡으려는 해독이 거의 기송이나 훈고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둘 다 학술이 잘못되어 이단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61]

61) 『湛軒書 · 外集』 卷1, 「與篠飮書」, 4쪽 "七十子喪而大義乖, 迂儒曲士, 博而寡要, 莊周憤世, 養生齊物. 朱門末學, 徒尙口耳, 記誦訓詁, 汨其師說, 陽明嫉俗, 乃致良知. 此其憫時憂道之意, 不免於矯枉過直, 而橫議之弊, 無以異於迂儒曲士, 正道之害, 殆有甚於記誦訓詁.…而學術之差, 同歸於異端矣."

왕수인은 장자와 같은 이단이 되어버렸지만, 그들은 모두 당대 무너진 정학을 바로 세우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평가이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16세기에 양명학을 처음 접했던 조선의 주자학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과업(科業)을 위한 사장지학(詞章之學)과 구이지학(口耳之學)을 하는 사람들을 청산 대상으로 상정한 16세기 사림파 성리학자들은 주자학의 말폐를 질타하고 나선 양명학의 의도에 대해서 공감했다.[62] 양명학자들과 자신들이 문제 의식에 있어서는 공유할 여지가 있다고 느낀 것이다. 김안국(金安國)은 "비록 주희와 의견을 달리했지만 마음 공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상산집(象山集)』을 평가했고,[63] 양명학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던 유성룡조차 젊은 시절에는 육구연에 대해 호의적이었다.[64] 특히 이이는 비록 명나라 학자들이 잘못된 육왕학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욕만 추구하면서 자기 수양에 힘쓰지 않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보다 낫다고까지 했다.

> 육상산의 학문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주자의 학문에 힘을 써서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로 중국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욕만 추구하고 주자와 육상산의 학문 중 아무 것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우리 나라 선비들은 주자학도 육상산의 학문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세속의 유행만 좇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머슴이나 노비들과 무엇이 다르랴? 그러니 우리가 육상산의 학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서 중국보다 우월한 측면을 찾으려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불교·도가·선종·육상산의 이론만이 이단의 말이겠는가? 선왕의 도가 아니고, 개인의 욕구만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다. 만약 세속의 유행을 옳다고 하여 부지런히 이익을 구하면서도 육상산의 학문을 비난하고 비웃는다면, 사흉(四凶)을 존경하면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비웃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65]

---

62) 16세기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 비판에 대해서는 김태년, 「16세기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 비판 연구」, 『한국사상사학』, 19(2002b), 151~183쪽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다.

63) 『慕齋集』 卷9, 「赴京使臣收買書冊印頒議」, 37쪽.

64) 『西厓先生文集』 卷15, 「象山學與佛一樣」, 15~16쪽.

65) 『栗谷全書』 卷13, 「學蔀通辨跋」, 34쪽. "不染陸學, 而專用功於朱學, 能知能踐, 則固勝於中朝矣. 若專攻利欲, 而朱陸之學兩廢, 則其優劣何如哉?…我國之士, 不朱不陸, 專務俗習者, 多矣. 此與傭夫販奴何別? 以此求勝於中朝, 無乃左乎? 異端之言, 豈必佛·老·禪·陸爲然乎? 世之非先王之道, 循一

한편 홍대용은 이러한 동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도 했다. 양주, 묵적, 황노지술(黃老之術), 선종, 육구연, 진량(陳亮) 등의 이단들도 나름대로 세상을 구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정학을 자칭하면서 실용이 없는 세유(世儒)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평가하며, 세상 모든 일에는 폐단이 있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성인의 학문도 후대의 폐단을 낳았는데 이단의 폐단만 말 삼아야 하겠냐면서, 이단이 비록 여러 갈래지만 마음을 맑게 하여 세상을 구제하려하는 것은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과 마찬가지이고 사람마다 각각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이단이라 하더라도 각각 장점을 다하여 풍속을 교화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는 데 이르렀던 것이다.[66]

물론 이는 주자학의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다른 사상들을 이용하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고방식은 상당히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에 가깝다.[67] 그렇다면 보편적 천리를 독점한 중화와 정학에 익숙했을 주자학자 홍대용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국내의 학술계 상황이 한 원인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정학과 이단이 갈리는 근본이라면서 몰두했던 이기심성논쟁, 경전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이는 번쇄한 논의들 속에서 호승심과 현학, 그리고 권력욕을 발견한 그는 급기야 "우리나라는 조선 중엽 이후로 편벽된 의론들이 속출하여 시비가 공정하지 못하다.…사문(斯文)의 일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주자를 반대하고 육왕의 학을 존중하는 이들도 다 인정을 받으며 사문에 위배된다고 벌을 받는 일은 듣지 못했다. 대개 그들은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공평하게 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니, 우리나라처럼 어느 한쪽에 얽매이는 그런 편견이 없다"[68]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한다.

己之欲者, 莫非異端也. 若以俗習爲是, 孜孜求利, 而非笑陸學, 則何異於尊尙四凶, 而譏刺楊·墨乎?" 이러한 논리가 발전된 형태가 張維의 논의이다. "中國有學者, 我國無學者. 蓋中國人才志趣, 頗不碌碌, 時有有志之士, 以實心向學, 故隨其所好, 而所學不同, 然往往各有實得. 我國則不然, 齷齪拘束, 都無志氣. 但聞程朱之學, 世所貴重, 口道而貌尊之而已."『溪谷漫筆』卷1, 24쪽.

66) 『湛軒書·外集』卷1, 「與孫容州書」, 51쪽.

67) 이런 사고 방식은 '華夷一'과 '人物均'의 관점에서 중화와 이적, 인간과 동물의 위계적 질서를 해체한 「의산문답」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68) 『湛軒書·附錄』, 「從兄湛軒先生遺事」, 6쪽.

또한 이런 국내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증폭시키는 한편 자신을 상대화시켜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계기는 역시 연행이었던 것 같다. 그는 연행을 통해 이적의 치하에 살고 있는 한족, 육왕학과 불교에 물들어 있는 유학자들을 만나 자기 주체를 잃지 않고 타자와 관용하며 교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관념이 아닌 현실의 중화를 볼 수 있었다.

> 내가 감히 "국내에 그럴만한 사람이 없어서 서로 사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처지와 습속에 제한되고 구속되어 그런 것이니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오늘의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선왕의 법복(法服)이 아닌 것을 모르겠습니까? 비록 그렇다 하여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어찌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공자께서 밟으시던 땅이 아니며, 그 사람들이 사귀는 선비가 어찌 제(齊)·노(魯)·연(燕)·조(趙)·오(吳)·초(楚)·민(閩)·촉(蜀)의 널리 보고 멀리 노닌 선비가 아니며, 그 사람이 읽는 글이 어찌 삼대(三代) 이래 사방 여러 나라의 극히 많은 서적이 아니겠습니까? 제도는 비록 바뀌었지만 도의는 달라지지 않았으니, 이른바 옛 중국이 아닌 지금의 중국에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망정 그 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중화가 아닌 이적이라고 차별하고 형적이 드러나고 신분의 위엄이 손상될까 꺼리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번거롭고 까다로운 예절 따위는 타파해버리고 진정을 피력하고 간담을 토로했으니, 그 통이 매우 큰 점을 볼 때 그들이 어찌 명성이나 이익을 좇아 쩨쩨하고 악착스럽게 구는 자들이겠습니까?[69]

또한 변화한 역사적 현실도 한원진과 달리 홍대용이 이적, 이단 등의 타자에 대해 더욱 관용적으로 대하게 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한원진은 "학문은 마땅히 주자

---

69) 『湛軒書·外集』 卷1, 「會友錄序」, 1~2쪽. "吾非敢謂'域中之無其人而不可與相友'也. 誠局於地而拘於俗, 不能無鬱然於心矣. 吾豈不知中國之非古之諸夏也, 其人之非先王之法服也? 雖然, 其人所處之地, 豈非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所履之土乎, 其人所交之士, 豈非齊魯燕趙吳楚閩蜀博見遠遊之士乎, 其人所讀之書, 豈非三代以來四海萬國極博之載籍乎? 制度雖變, 而道義不殊, 則所謂'非古之諸夏'者, 亦豈無爲之民而不爲之臣者乎? 然則彼三人者之視吾, 亦豈無華夷之別而形跡等威之嫌乎? 然而破去繁文, 滌除苛節, 披情露眞, 吐瀝肝膽, 其規模之廣大, 夫豈規規齷齪於聲名勢利之道者乎?"

학을 주로 해야 하고, 사업은 효종이 못 다 이룬 북벌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송시열의 유훈을 충실히 계승하려 한 사람이며, 그의 현실 인식 또한 송시열의 그것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반면 홍대용의 현실 인식은 한원진과 달랐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는 '북벌'이 아닌 '북학'을 주창했던 것이다. 이는 청이 멸망하거나 조선이 청을 정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선배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개된 역사적 현실에 기인한 것이었다.[70]

청은 중원에서 오랫동안 버텼을 뿐 아니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자기 체제 내로 복속시키는 등 성공적으로 제국을 운영해 나아갔다.[71] 반면 조선은 여전히 '북벌'할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사문난적' 시비와 '충역' 논쟁을 벌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대용은 청을 무찌르자는 '북벌'이 아닌 청을 배우자는 '북학'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이는 타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V. 결론

한원진과 홍대용은 '주자학자'와 '실학자', '북벌론자'와 '북학자'로 판연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학자들이지만, 양자는 모두 주자학을 정학으로 여기고 있었고, 불교·도교·양명학 등을 이단으로 판정하고 그들을 비판하였으며, 양자 모두 주자학의 이기심성론과 수양론에 기반을 두고 비판을 진행했다. 다만 다른 것은 비판의 태도였다. 한원진은 동문이었던 이간에게조차 이단의 경향이 보인다며 엄정하게 비판의 잣대를 들이댄 데 비해, 홍대용은 중국에서 만난 학자들에게도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들이 비록 변발을 하고 양명학과 불교에 경도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진리를 추구하는 동학으로, 같은 문명인으로 대했던 것이다.

---

70) 현실의 변화에 따른 조선 학자들의 청에 대한 인식과 중화론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아카넷, 2009) 참조.

71) 청은 1680년대 전반에 중국 내지를 평정하고 원과 명에 이어서 중국의 통일 왕조가 된 후 1750년대 후반에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 특히 康熙·擁正·乾隆의 약 130년간의 시기는 청이 가장 융성했던 때로 평가받는다. 당시 청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시바시 다카오(저)/홍성구(역), 『大淸帝國』(휴머니스트, 2009) 참조.

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원진은 민심을 수습하고 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오랑캐 무찌르기'를 주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단 물리치기'와 '소인배 척결하기'를 추진하면서 그를 통해 중화가 재건되고 정학이 바로 서며 군자들이 정치를 주도하기를 소망했다. 반면에 홍대용은 청은 성공적으로 제국을 정비해 나아가는데 비해 조선은 여전히 이기심성론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고 주자학에 대한 지식으로 등급을 매기며 '사문난적' 시비와 '충역' 논쟁을 벌이고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당시의 지적 상황에 염증을 느끼다가 연행을 통해 타국의 지식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상대의 처지를 인정하고 보편적 진리를 논하였다. 이들은 이렇듯 비록 정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이러한 차이가 바로 '북벌'과 '북학'의 다른 노선으로 이어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학이단론을 통해 볼 때, 홍대용의 사상이 과연 탈성리학적인지에 관해 논해 볼 차례이다. 먼저 홍대용은 스스로 성리학을 벗어나려 했는가? 앞에서 살펴 본대로 홍대용은 스스로 주자학을 벗어나려 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주자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홍대용은 탈성리학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이 비판했던 그룹에 속했던 근본주의적 주자학자 한원진과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 그 거리가 과연 탈성리학이라 칭할 만큼이었는가? 적어도 정학이단론에 드러난 그의 견해는 주자학, 더 나아가 가장 보수적이던 한원진의 그것과 일치한다. 다만 한원진에 비해 타자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관용적 태도의 이면에는 근본주의적인 정학이단론을 펼치던 당시 조선 학계에 대한 불만(그가 비판한 건 주자학 그 자체가 아니라 조선의 선배와 동료들이었다)과 위기지학으로서 실학에 대한 갈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물론 홍대용의 '탈성리학' 여부에 대한 이러한 결론은 그의 정학이단론에 한정된 것이다. 다른 분야에 대한 홍대용의 견해, 예컨대 화이론, 우주론 등과 그의 이러한 정학이단론을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김안국, 『慕齋集』(『한국문집총간』 20). 민족문화추진회.
김원행, 『渼湖集』(『한국문집총간』 220). 민족문화추진회.
박종채(저)/박희병(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過庭錄』). 서울: 돌베개, 1998.
유성룡, 『西厓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52).민족문화추진회.
이이, 『栗谷全書』(『한국문집총간』 44~45). 민족문화추진회.
한원진, 『南塘集』(『한국문집총간』 201~202). 민족문화추진회.
한원진, 『南塘集』상・하. 채인식 영인본, 1976.
한원진(지음)/곽신환(譯註), 『주자언론동이고』. 서울: 소명출판사, 2002.
한원진, 『莊子辨解』. 규장각1648.
홍대용, 『湛軒書』(『한국문집총간』248). 민족문화추진회.
홍대용(지음)/소재영(외 주해), 『주해 을병연행록』. 서울: 태학사, 1997.
홍대용(지음), 이상은(외 역), 『국역 담헌서』 1~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9.

김도환, 『담헌 홍대용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7.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5.
김태년, 「지각, 세계를 인식하는 맑고 밝은 마음」. 『조선 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a, 299~321쪽.
김태년, 「16세기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 비판 연구」. 『한국사상사학』 19, 2002b, 151~183쪽.
김태년, 「남당 한원진의 '정학' 형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김태년,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 『한국사상사학』 22, 2004, 247~276쪽.
김태준, 『홍대용』. 서울: 한길사, 1998.
송석준, 「실학파의 사상에 나타난 양명학적 사유구조」. 『유교사상연구』 7, 1994, 391~415쪽.
송영배, 「홍대용의 상대주의적 사유와 변혁의 논리: 특히 『장자』의 상대주의적 문제의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74, 일지사, 1994, 112~134쪽.
유명종, 「북학파와 양명학」. 『철학연구』 20, 1975, 95~117쪽.
이시바시 다카오(지음)/홍성구(옮김), 『대청제국, 1616~1799』. 휴머니스트, 2009.
임종태, 「우주적 소통의 꿈: 18세기 초반 호서 노론 학자들의 육면세계설과 인성물성론」. 『한국사연구』 138, 2007, 75~120쪽.

조성산,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에 대한 연구현황과 전망」. 『오늘의 동양사상』 1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285~314쪽.
허태용, 「'북학사상'을 연구하는 시각의 전개와 재검토」. 『오늘의 동양사상』 1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315~354쪽.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서울: 아카넷, 2009.

山内弘一, 「洪大容の華夷論について」, 『朝鮮學報』 159, 朝鮮學會, 1996, 71~109쪽.

국 문 요 약

"'이적(夷狄)'이 '중화(中華)'의 주인이 되는" 명·청 교체를 겪으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북벌(北伐)'과 '북학(北學)' 사이에서 고민했다. 본고는 비슷한 시기 북벌과 북학을 각각 주창했던 한원진(韓元震, 南塘, 1682~1751)과 홍대용(洪大容, 湛軒, 1731~1783)의 정학이단론을 살펴봄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글이다.

그들은 '주자학자'와 '실학자', '북벌론자'와 '북학자'로 판연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학자들이지만, 양자는 모두 주자학을 정학으로 여기고 있었고, 불교·도교·양명학 등을 이단으로 판정하고 그들을 비판하였으며, 양자 모두 주자학의 이기심성론과 수양론에 기반을 두고 비판을 진행했다. 다른 것은 비판의 태도였다. 한원진은 동문이었던 이간(李柬)에게조차 이단의 경향이 보인다며 엄정하게 비판의 잣대를 들이댄 데 비해, 홍대용은 중국에서 만난 학자들에게도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들이 비록 변발을 하고 양명학과 불교에 경도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진리를 추구하는 동학으로, 같은 문명인으로 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원진은 민심을 수습하고 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오랑캐 무찌르기'를 주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단 물리치기'와 '소인배 척결하기'를 추진하면서 그를 통해 중화가 재건되고 정학이 바로 서며 군자들이 정치를 주도하기를 소망했다. 반면에 홍대용은 청은 성공적으로 제국을 정비해 나아가는데 비해 조선은 여전히 이기심성론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고 주자학

에 대한 지식으로 등급을 매기며 '사문난적(斯文亂賊)' 시비와 '충역(忠逆)' 논쟁을 벌이고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의 이런 지적 상황에 염증을 느끼다가 연행을 통해 타국의 지식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상대의 처지를 인정하고 보편적 진리를 논하였다. 이들은 이렇듯 정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이러한 차이가 바로 '북벌'과 '북학'의 다른 노선으로 이어졌다.

◉ 투고일 : 2009. 7. 13. ◉ 수정일 : 2009. 8. 28. ◉ 게재확정일 : 2009. 9. 7.
◉ 주제어(keyword) : 홍대용(Hong Daeyong), 한원진(Han Wonjin), 정학(orthodoxy), 이단(heresy), 중화(sino-centrism).